

돌연 책상 내리쳐 '황'...'바람부부' 남편, 분노조절 실패 이유

등록 2025.01.23 19:26:00



[서울=뉴시스] JTBC '이혼숙려캠프'가 23일 오후 10시10분에 방송된다.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다희 인턴 기자 = MC 서장훈이 이혼위기 부부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넨다.

23일 오후 10시10분 방송되는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7기 부부들의 최종 결말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8기 첫 번째 부부의 가사조사가 공개된다.

우선 남편의 외도 여부로 갈등을 빚었던 '바람 부부'의 최종 조정이 눈길을 끈다.

조정에서 부부 양측의 주장이 오가던 중, 남편은 갑자기 책상을 내리치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돌발 행동을 해 모두를 당황하게 한다. 이에 서장훈은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충고한다.

하루종일 술과 함께인 술고래 남편과 종일 심부름을 해주는 아내, '셔틀 부부'의 최종 조정도 진행된다.

조정 전 남편은 아내의 공개적인 19금 토크에 늘 난감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고민을 장난처럼 넘겨버린다.

이에 화가 난 남편은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며 언성을 높여 아내는 결국 눈물을 보인다.

이날 7기 부부들의 조정이 마무리된 후, 새롭게 '이혼숙려캠프'에 입소하는 8기 부부들이 등장한다.

먼저 심각한 폭언을 일상적으로 내뿜고 습관적으로 대화를 회피하는 남편과 분이 풀릴 때까지 같은 말을 반복하는 아내의 가사 조사가 진행된다.

특히 그동안 다양한 잘못을 저지른 남편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아 늘 '좌불안석' 모드였던 남편 측 가사조사관 배우 진태현은 이번 가사조사에서 의미심장한 표정과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

그 모습을 본 아내 측 가사조사관 배우 박하선은 불안해했다는 후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ahee328@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